

# 일본의 설날과 화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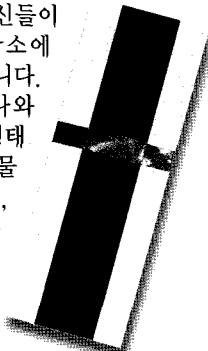


현대화장실사정연구회대표 야마시타 토모루(山下 亨)

양력 1월1일은 일본의 설날입니다. 눈이 많이 내리는 아한대에서 남쪽 섬 아열대까지 남북으로 긴 일본열도는 기상과 풍토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설날행사에도 지역적인 특색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설날 행사와 화장실 생활의 모습을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년을 맞이하는 준비와 화장실

각 가정에서는 12월 하순이 되면 신년을 맞이할 준비로 신들이 머물고 있다고 믿는 장소에 간단한 소나무 장식을 합니다. 현관에 소나무와 시메나와(짚으로 엮어 만든 둥근 형태의 장식)를 장식하고, 우물(물의 신이 머무는 곳), 취사장(물의 신이 머무는 곳), 목욕물 데우는 곳(불의 신이 머무는 곳) 등에도 간단한 소나무 장식을 하여 일년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화장실 신의 오후다(부적)

화장실(화장실의 신이 머무는 곳)은 각 가정에 따라 대응이 다른 듯합니다. '화장실은 심신의 건강을 보호하는 신이 머무는 장소'로서 숭배하는 풍습이 남아 있는 지방이 있는데, 북쪽 지방의 일부에서는 연말에 가까운 절에 참배하여 '화장실의 신'(우스마사묘)의 오후다(부적)을 받아 와서 화장실의 실내 벽에 겁니다. 덧붙여 말하면 제 고향에서는 화장실의 천정과 바닥 등을 청소한 후 화병에 국화를 꽂아 장식

하고 문에는 소나무 장식을 합니다.

### 하츠모우데와 화장실

설날 아침에는 많은 일본인이 가까운 신사나 절에 참배하러 갑니다.(이를 하츠모우데라고 합니다) 3일동안 7백만명 이상이 참배하는 신사나 절도 있습니다.

하츠모우데에서는 새전함에 돈을 던져 넣으며 소원을 빌며 합장 배례를 합니다. 수험생들은 지원한 대학의 합격을 기원하기도 하고 또 집에 장식할 하마야(1년의 운수를 점치는 놀이에 쓰이는 화살)나 오후다를 사기도 하고, 돌아오는 길에는 노점 포장마차 등에서 술이나 감주를 마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편, 하츠모우데에는 젊은 여성들이 기모노 차림으로 참배하러 가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기모노 차림의 여성들은 어떠한 화장실 생활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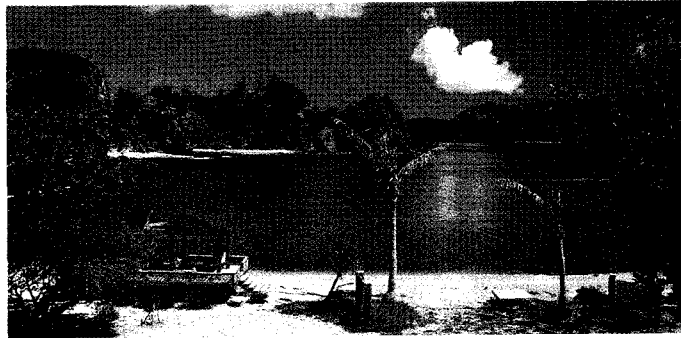
▲ 설날 신사에 참배하는 풍경(오오미야하치만구에서)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화장실문화라는 작은 실마리에서 시작하여, 한·일 양국의 우호교류라는 형태의 큰 교류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며 일본의 화장실을 소개합니다.

할지 궁금합니다. 남성인 저로서는 친구에게 물어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기모노에는 전용 속옷이 있어 그것을 입으면 의외로 간단한 화장실 처리가 가능하지, 하지만 최근에는 호텔에 가서 양식변기가 있는 넓은 토일렛 룸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라고 친구인 여성이 가르쳐 주었지만 그 이상 자세한 것은 물어 볼 수 없었습니다. 인간은 무엇을 입는 지에 따라서 화장실 사용방법도 달라집니다. 설날 뿐 아니라 의복의 역사와 화장실 사용방법의 역사에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듯합니다.

###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남쪽섬의 해수욕장의 개장과 화장실

동경에서 약 1천km 떨어진 태평양상의 오가사하라(小笠原)제도에는 유인도인 찌찌지마(父島), 하하지마(母島)가 있습니다. 두 섬 모두 둘레 약 24km 정도의 작은 섬이며 약 2,500명의 주민이 어업이나 관광업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열대의 이섬에서는 매년 1월 1일 오전 0시 00분, 만에 정박중인 배들이 일제히 경적을 울리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해수욕장의 개장(첫수영)'을 합니다. 첫수영 후에는 섬의 신사에 가서 하츠모우데를 하고 집에 돌아와 오조우니(일본식 떡국)를 먹으며 신년을 축하합니다. 해변에서는 '남쪽 섬의 여왕콘테스트' 등 섬의 이벤트가 개최되고, 주민과 관광객들이 정월초하루를 즐겁게 맞이합니다. 국립공원인 이 섬에서는 주민들의 편리한 화장실 생활과 에메랄드빛 투명한 바다를 지키기 위하여, 1973년 9월 화장실의 배설물과 생활용 배수를 처리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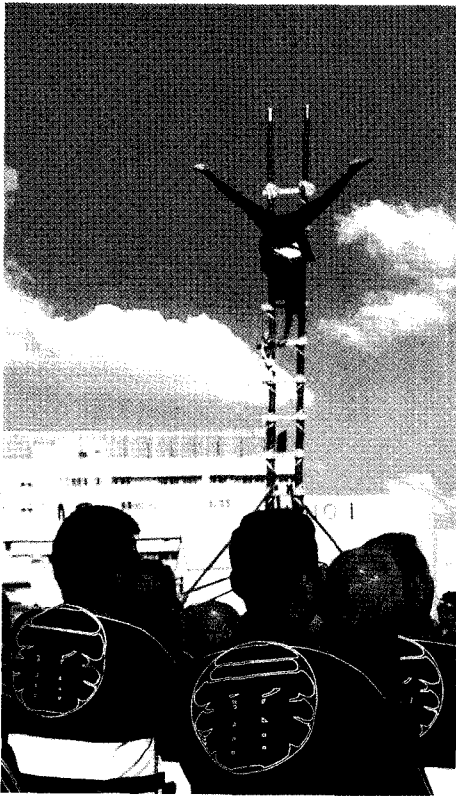
▲ 오가사하라(小笠原) 제도의 찌찌지마(父島)의 풍경

하수처리장을 건설하였습니다. 모든 가정에는 수세식 양식 화장실이 갖추어져, 쾌적한 화장실 생활이 가능한 섬이 되었습니다. 한편, 해변에 떠도는 많은 양의 해양 쓰레기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만....

### 데조메시키(소방시무식)와 화장실

설날 행사로서 이색적인 것은 매년 1월 6일 '데조메시키(신년에 소방대원과 주민소방단이 모여 처음으로 소방연습을 하는 의식)'라는 소방 이벤트입니다. 에도시대 1718년에 '自警소방단(자케이소방단-자기 동네의 화재를 스스로 경계하고 소화하는 집단)'이 에도(도쿄)에서 편성된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현재는 전국의 도시에서 이 시기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는 하루미후도우(晴海埠頭)를 회장으로 도쿄소방청 등의 공동개최로 실시하며, 고가 사다리차, 소방차, 구급차 등이 집결하여 소방시무식을 하고 남녀

화장실에 있는 구조물을 보고 건축기술을 짐작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은 복지수준을 알 수 있으며, 이용자들의 청결의식은 시민 수준의 기능자가 되고 유지관리 상태는 행정전반의 성적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 도쿄 소방시무식의 사다리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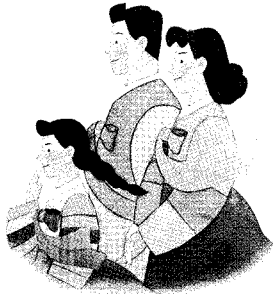
에 2시간 정도나 진행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약 10개 정도의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지만 많은 견학객이 찾아오기 때문에 화장실에는 늘 20여명 정도가 순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쿄도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할 사명에 불타있는 건장한 소방그룹의 피로연인 이날이야말로 견학객에게는 '대접하는 정신'으로의 화장실 대책이 중요하겠지요.

#### 일본에서 가장 빠른 일출과 화장실

태평양에 접한 치바현 초시시의 이누보사키에서는 일본에서 가장 빠른 일출(6시 26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시시에서는 1999년 12월 31일 21시부터 2000년 1월 1일 8시 까지 '2000년 밀레니엄 이벤트'를 개최, 회장(이벤트 장소)에는 도쿄방면에서 젊은이들 약 15만명이 자가용 등으로 모여들었고, 해변

소방단원이 첫연습을 하기도 하며 소방단원이 핫피(소방단원이 입던 제복의 이름)차림으로 사다리타기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피날레에는 동경만을 향해 일제히 방수합니다. 이 소방시무식에는 신바시(新橋)에서 모노레일을 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추운 날씨

한·일 양국이 화장실문화의 교류가 시작된 것을 계기로 각국의 독자적인 민족문화를  
 소중히 하면서 화장실 문화가 현실적으로 착실히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공원의 회장에는 부타지루 등의 큰 나베요리 등이 나오며 카운트다운, 불꽃놀이, 장구, 재즈피아노 연주 등 많은 행사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로, 주차장, 회장 모두 예산을 넘어선 인파로 대혼란을 겪었습니다. 게다가 회장인 해변에는 공중화장실이 2개밖에 없어 화장실 부족으로 인한 젊은이들의 비판이 속출하였습니다. 21세기 첫일출을 '세기를 넘어선 이벤트'로 성대히 치루겠다는 시의 실행위원회는 전회의 화장실 부족의 비판과 함께 '이벤트에는 화장실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제 주장과 제안을 받아들여 이벤트회장에 76개 부스의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고, '대접의 정신'으로 담당 스태프를 배치하여 관리체제를 충실히 하였습니다. 자,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다음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본에서 가장 빠른 일출을 볼 수 있는 해변의 공중화장실